

이병훈, 김영록 지지 선언...급물살 타는 '연대'

6·3 지방선거 D-70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본경선을 앞두고 후보 간 연대 움직임이 본격화되며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였던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상임수석부위원장이 김영록 예비후보(전남지사 직무정지) 지지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강기정·신정훈 후보 측도 단일화 방안을 놓고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 향후 경선 구도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2·3·4·5·7면

총괄상임선대위원장으로 전격 합류
李 “통합완성·갈등 해결 金 적임자”
金 “姜·辛·朱도 함께 하자” 러브콜
강기정·신정훈도 단일화 논의 진행
勢 확장 경쟁...연대 확대 여부 주목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상임수석부위원장은 24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영록 예비후보의 총괄상임선대위원장으로 그 곁에 함께 하겠다”고 지지를 선언했다. <사진> 이 부위원장은 “이 결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마주한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통합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 간 이해관계, 행정 체계 재편, 예산과 자원의 배분 문제 등 여러 갈등이 산적해 있는데 이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해 하나의 통합으로 완성하는 역할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인물이 김영록 후보”라고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위원장은 “김 후보는 전남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온 인물로 지방과 중앙을 두루 경험한 행정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국가AI컴퓨팅센터, 오픈AI 데이터센터, 나주 인공지능 연구시설 유치 등이 대표 성과”라고 김 후보를 추켜세웠다. 또한 이 부위원장은 “조건은 전혀 없고 자리욕심도 없다. 통합특별시의 초대 선장이 가시밭길을 가는 데 맨 발치에서라도 힘을 보태고 싶다”며 “같은 배를 탄 통합의 동지로서 통합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뜻을 같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이 위원장이)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광주·전남 대통합과 미래 설계를 위해 뜻을 같이한 것”이라며 “저로서는 어마어마한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다. 앞으로 승리는 확실하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화답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병훈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행정 경험과 정치 경험, 뛰어난 리더십을 갖춘 분”이라며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 시·도민이 원하는 상생의 통합 모델을 만들고 미래 청사진과 먹거리, 일자리를 만들어 시·도민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정략적인 합종연횡의 뜻은 전혀 없다”며 “오직 이 부위원장이 광주·전남의 미래, 대통합특별시의 미래를 위해 결정한 부분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존경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김 예비후보와 이 부위원장은 향후 추가 연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예비후보는 “강기정 예비후보(광주시장 직무정지)와 통합의 동반자였고 신정훈 예비후보와는 청와대 농업비서관 시절 쌓은 문제를 해결했던 연대 의식이 있다”며 “앞으로 통합에 있어서 함께 연대하고 협력할 동반자”라고 러브콜을 보냈다. 김 예비후보는 또 “주철현 예비후보 역시 전남 동부권 대표 주자로 통합의 동반자로 모시고 싶다”며 “동부권 도민의 뜻도 중요하고 어려운 경제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사실상 연대를 요청했다. 이 부위원장은 “경선은 치열하게 하더라도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고 자기 선거를 하자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최종 본선에서 2명으로 결정된 뒤 정중히 찾아가 뜻을 같이 하자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부위원장은 “강기정·신정훈·민형배 후보에 좌송하다”며 “모두 지역의 후배들이고 친분이 오래된 사람들이기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후보 간 연대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경선 구도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강기정·신정훈 예비후보도 내부적으로 단일화 논의의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 캠프 관계자들은 단일 후보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 실시 방안을 두고 방식과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단일화가 실제 성사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재정·변은진기자



광주·전남 각 분야의 리더들에게 고품격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광주매일신문 '제13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개강식이 24일 오후 광주 남구 임암동 어반브룩에서 열렸다. /김애리 기자

광주매일신문 '제13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개강

광주·전남 지역 각계 리더들에게 최고 수준의 교육 콘텐츠와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광주매일신문 '제13기 창조클럽 아카데미' 개강식이 24일 오후 광주 남구 어반브룩에서 열렸다. 개강식에는 마찬호 광주매일신문 부회장,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 창조클럽 아카데미 총동맹회 임원, 아카데미 원우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개강식은 ▲국민의례 ▲내빈 소개 ▲환영사 ▲아카데미 소개 ▲광주매일신문 임직원 소개 ▲사진 촬영 ▲개강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마찬호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이 자리에 모인 지역 리더들을 보니 우리 광주·전남의 미래가 참으로 든든하게 느껴진다”며 “전남·광주 행정통합이라는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앞서가는 것이 아닌 ‘함께 멀리 보는 혜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분야별 최고 강사진...열정·지식 추구·학습·교류 등
마찬호 부회장 “행정통합 속 ‘멀리 보는 혜안’ 필요”

그러면서 “창조클럽 아카데미는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답하는 소중한 장소”라며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모인 이 자리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상생의 에너지를 결집하고 지역경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집단지성의 산실이자 경영 현장과 삶에 커다란 영감을 주는 배움의 장이 되길 기원한다”고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진 축하 공연에서는 황태경 테너가 천상의 음색으로 무대를 채웠다. ‘브린디시’를 시작으로 ‘향수’, ‘첫사랑’, ‘지금 이 순간’, ‘나는 행복합니다’ 등 다양한 장르의 곡과 가요를 통해 원우들과 소통했다. 올해 13기 창조클럽 아카데미는 이날 개강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격주 화요일마다 오후 6

시 식사 후 오후 7-9시 강좌를 선보인다. 총 16회로 구성됐으며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탁월한 역량과 깊은 경험, 차별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명강의를 펼친다. 강사진으로 박지훈 변호사(4월7일), 김동규 성악가(4월21일), 이봉주 마라토너(5월12일), 조영구 방송인(5월20일), 뮤지션 ‘리디안팩토리’의 공연(6월9일), 한다혜 박사(6월23일), 정윤호 마술사(7월7일) 등을 초청해 각종 강좌와 함께 성악, 재즈 공연 등 문화·예술 경험도 제공한다. 특히 오는 5월 중에는 국내 또는 해외연수를 추진해 소통의 시간을 갖고 지역내 각계각층 리더들 간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는 1천여명 이상의 지역 리더와 CEO들이 참가해 시대 변화에 발맞춰 각자의 역량을 키워 왔다. /서형우 기자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의무화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민간에도 참여를 요청했다. ▶관련기사 4·6·7면

기후부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제외한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25일 0시를 기해 의무화한다. 공공기관 승용차 5일제는 ‘경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사용 승용차(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위반 시 페널티는 ‘청사 내 주차 금지’ 정도 밖에 없다. 기후부는 승용차 5부제 이행 지침을 내리는 한편, 결과를 점검해 ‘강제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민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 인터뷰...기호 1번 김영록...▶5면

Today

“의대입지 결정 통합시장 권한 아니다” 2면

장갑수와 함께 걷는 길-장성호 수변길 14면

“4인방 8K...올려, 준비는 끝났다” 16면

최고의 위치!! 최대의 광고효과!!

광주 백운광장 미디어월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의 공공목적 광고와 대국민 정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목적 광고 및 정책홍보

최고의 입지와 가시성으로 효과 탁월

다양한 정보제공과 광고로 주목도 상승

1일 100회 이상 노출 월 3,000회 이상 노출

01 광주/전남 최대의 Full Color LED전광판

- ▶ 다양한 화면구성으로 가시성과 주목성 탁월

02 광주/전남 최대의 교통량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 ▶ 시정개발 요충지로 광고 및 콘텐츠 전달력 탁월

03 최고의 해상도와 화면구성으로 광고효과 극대화

- ▶ 정보전달과 광고의 적절한 구성으로 효과 탁월

04 교차로 중심지의 대형 디스플레이로 차량, 보행자 모두에게 높은 노출 효과

- ▶ 백운광장 일대 교차로 통행 차량 약100,000대, 푸른길 브릿지 이용자 수 약2,000 ~ 3,000명으로 차량 승차 인원 및 보행자 등 하루 수십만명 노출 효과 추정

전광판 사진

원거리

근거리

광주매일신문 ☎ 광고문의 062) 650-2070